

교회: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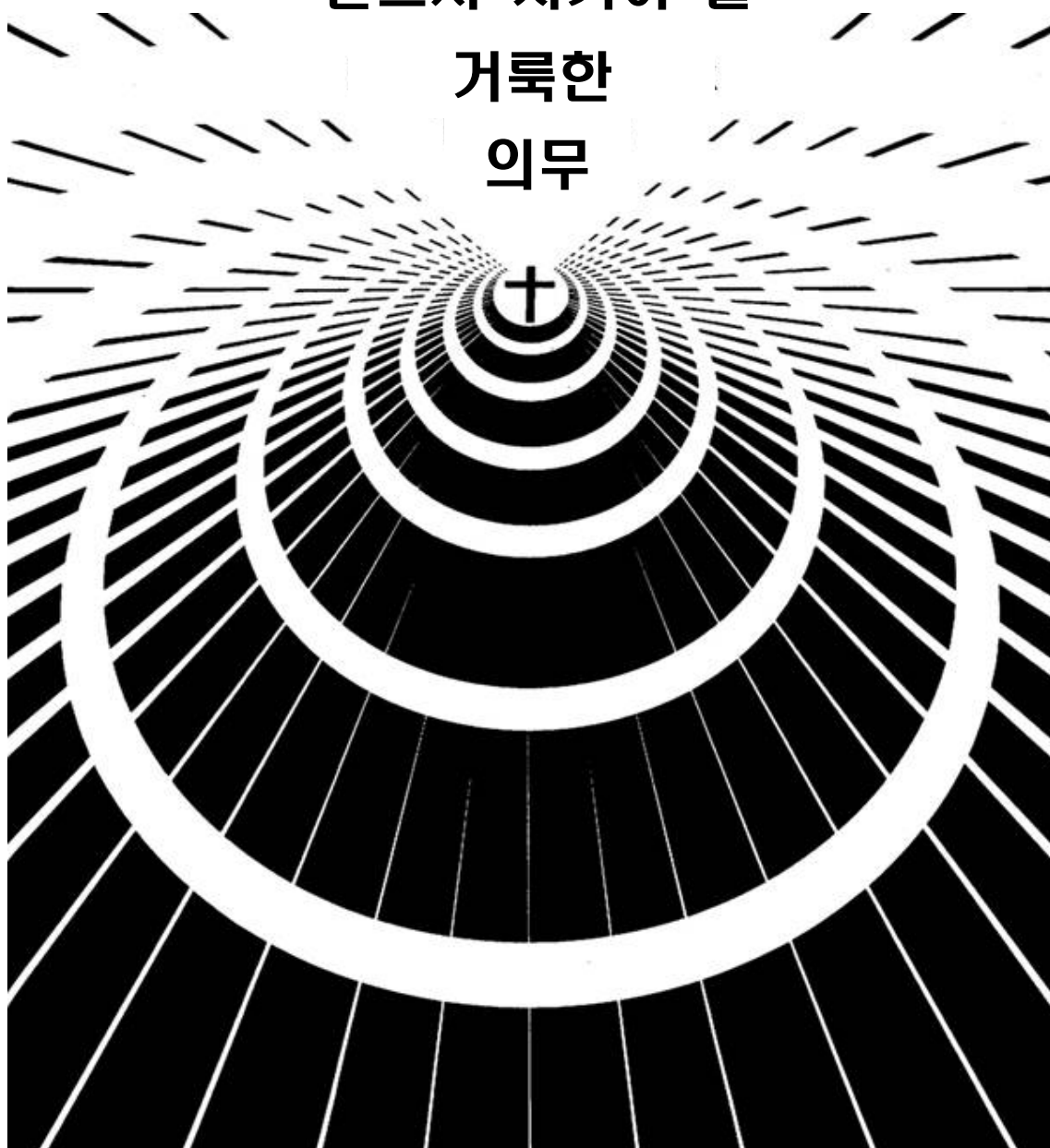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1 권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



<청장년부 공과 제 11 권>

주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

공과	제목	쪽
제131공과	성경	1
제132공과	하나님의 집	3
제133공과	주님의 이름	5
제134공과	서원	7
제135공과	성만찬과 세족례	9
제136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11
제137공과	자아	13
제138공과	교리들과 영적 지침들	15
제139공과	주의 날	17
제140공과	헌신	19
제141공과	가정 제단	21
제142공과	하나님의 능력	23
제143공과	하나님의 일	25

들어가면서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책장에 꽂힌 많은 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당신은 속어, 비속어를 사용합니까? 당신의 일상에서 말과 행동과 모습은 어떠합니까?

11권의 주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1권은 거룩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할 13가지 의무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1권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131공과 성경

성경본문: 시편 119:1-16 ; 디모데후서 3:16 ; 요한계시록 22:19

요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시편 119:21)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인류에게 계시하신다. 그 중 제일 잘 알려진 것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세기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아래 그 지시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은 고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준다. 또 미래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실 것인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권위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못 시대와 영원무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목적들을 보여준다. 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룩한 책이기에, 고금동서의 모든 종교서적들과도 완전히 다르다.

1.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비취는 등불과 닮았다고 했다(벧후 1:19). 닮은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해 보라.

2. 성경은 성경이 증거 하는 대로(벧후 12:20,21)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아래 예언하고 기록한 것이다. 성경책이 인간의 설명이나 해석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 구약의 저자들은 서로를 잘 몰랐다. 반면 신약의 저자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 신구약의 저자들의 기록들은 일치성에서 놀랄 정도로 같다. 이 저자들 몇을 들라.

4. 성경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딤후 3:16). 이를 보여주는 체험이나 성경적인 실례를 하나 들라.

5.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시 119:9)고 하신다. 여기서 “삼가다”의 뜻을 설명해 보라.

6.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준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영원한 형벌을 초래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는가?

7. 우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그 모든 기록들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아기의 출생과 방금 거듭난 초신자의 영적 출생 사이에서 그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비교해 보라(참조 히 5:13,14).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라. 당신은 구원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당신의 영적 성장은 당신이 그 동안 들은(먹은) 영적 양분(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는 육체는 양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 영혼도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왔던가?

제132공과 하나님의 집

성경본문: 역대하 5:11-14 ; 마태복음 21:12-16

요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6:8)

기도의 집!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대해 바라시는 본래 모습이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광야교회도 들어있는 성막건축도 포함됐다.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인생들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예배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경심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이뤄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인생들의 삶 속에 기쁘게 거하실 것이다.

1.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히 10:25). 교회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교회출석의 유익 몇을 들라.

2.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다른 악덕들을 정죄하셨다. 성전에서 우리의 처세가 어떠하여야 할지를 성경에서 찾아 적으라(전 5:1,2).

3. 교회에 출석하고, 말을 삼가고 하는 이외에 무엇으로 성전을 존중할 수 있는가?(대하 29:15).

4.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자기 행위로 성전을 무시하게 되는가?

5.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나팔수들과 찬양자들은 하나 되어 참여했다. 이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임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의당 성전은 존중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임재하신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떠하여야 할지를 설명하라.

6. 다음 인물들은 신구약의 여섯 인물들이다. 성전과 성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유명해졌거나 혹은 그 반대의 인물들이다. 그들의 행적과 그 결과를 적으라.

나답과 아비후(레위기 10:12)

요시아 왕(열왕기하 23:1-3 ; 역대하 45:26-28)

웃시아 왕(역대하 26:16-20)

히스기야 왕(이사야 37:14,15, 33-35)

안나(누가복음 2:36-38)

어떤 면에서 이들은 우리의 모본이 되는가?

7. 다윗 왕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내놓았는가? 그가 것처럼 엄청난 돈을 드린 이유를 설명하라.

8. 다윗의 풍성한 헌금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도 자원하여 금 5천 달란트와 1만 드램, 은 1만 달란트와 구리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와 여러 가지 보석들을 바친 것이다. 백성과 다윗은 함께 크게 기뻐했다. 이는 우리에게 성전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제133공과 주님의 이름

성경본문: 레위기 24:10-18 ; 에스겔 36:21-23

요절: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볍게 취급치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로써 판단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은 가벼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1.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히 보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아래 성구들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성호들을 찾고 하나님의 위대성들에 대해서도 적으라.

창세기 17:1

출애굽기 3:14

신명기 32:8

여호수아 3:10

이사야 43:15

3. 주님의 이름을 속어나 속어에서 유래된 완곡어구 등으로 가벼이 쓰는 행위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는 행위이다. 아래 속어들을 정의하라.

지(Gee)/다안(Darn)/가쉬(Gosh)/갈리(Golly)/도간(Doggone)/헉(Heck)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요 5:18 ; 빌 2:5,6).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과 동일한 이름 몇 가지를 부여하고 있다(사 9:6). 출애굽기 20:7절의 명령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보라.

5. 삼위일체의 제 삼 위가 되시는 성령께 대해서도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주어지는 존귀와 영예를 돌리고 있다. 죄 중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막 3:22,28-30). 그 이유를 설명하라.

6.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맹세치 말고 말할 때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마 5:33-37).

7.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사람과 하나님을 동등시 하는 식의 언동도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것이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이방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성경(왕하 18:28-35, 19:35-37)에서 이 왕에게 일어난 일을 요약해 보라.

8.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가?(참조 막 12:30,31) 또 이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경과도 비교해 보라.

9.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참조 신 6:4-7)

10. 맹세나 속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성호를 모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11. “모든 이들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롬 14:11,12 ; 빌 2:9-11). 이처럼 강제로 자백하는 이들과 지금 자원하여 죄를 회개하는 자들과의 차이를 말해 보라.

제134공과 서 원

성경본문: 신명기 23:21-23 ; 사무엘상 1:9-18, 24-28 ; 전도서 5:2,4,5

보조본문: 창세기 28:10-22

요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시편 66:13,14)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약속이다. 어려울 때 자원해서 행하는 약속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원은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무엇 무엇을 행하거나 혹은 그만두겠노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되 시급하게 갚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1. 서원과 헌신은 다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특별한 약속이 꼭 헌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달란트와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서원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서원은 언제 하게 되는가?

2.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였기에 입술만 움직였다. 제사장은 그녀를 오해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의 서원을 들어 주셨는가?

3. 한나는 얼마나 빨리 자기 서원을 갚았는가? 왜 서원 갚기를 서둘러야 했는가?

4. 오늘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할 때 주의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서원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서원이 죄가 되는 경우를 들어 보라.

5.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서원을 갚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들로 무엇이 있는가?

6. 야곱은 하나님께 “보호와 양식과 의복과 아비 집으로서의 안전한 귀환”을 구했고 이를 들어 주시면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고 서원했다. 이 서원으로 야곱은 무슨 유익을 얻었나?

7.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그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십일조를 드리겠노라”고 야곱은 서원하였다. 그가 그 서원을 값은 증거를 찾아보라.

제135공과 성만찬과 세족례

성경본문: 마가복음 14:12-16, 22-25 ; 요한복음 13:4-17 ; 고린도전서 11:27-30

요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17)

성찬식에 관한 정의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것”이다.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반면 세족례는 주님이 친히 성만찬과 함께 제자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성찬예식의 일부임에도 많은 이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하나님은 옛적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일 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 절기 중 떡 먹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만찬인 주의 성만찬을 지키도록 교훈하셨다. 이 예식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을 위하신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달 제 십일에 양 떼 중에서 어린 양을 하나 따로 보 관하여 놓았다가 제 십사일에 잡아서 저녁에 불로 구어 먹었다. 그 양의 피는 그들의 집문들 위에 발랐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 우리 신자들이 오늘날 주의 성만찬 의식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라.

3. 주님의 성만찬예식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을 들라. 떡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4. 첫 번 성만찬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다. 고린도전서 11:27절의 “합당치 않게”라는 단어의 뜻에서 볼 때, 이 의식에 참여할 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또 그 다음 구절의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라.

5. “주님의 몸을 분변하다”의 뜻을 설명하라.
6. 당시에 관습적으로 발을 씻던 것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의 차이를 설명하라.
7. “주님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바꾼 이유를 들라.
8. 디모데전서 5:10절에서 바울이 말한바 “칭찬할 만한 선행” 몇을 들라.
9. 마태복음 28:19,20절과 세족례와의 관계를 논하라.

제136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본문: 요한복음 20:1-18

보조본문: 누가복음 24:1-12

요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신약성경 사복음서들에 다 나온다. 이는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더라면 신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역사의 진로를 바꿔 놓았다. 부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류구속의 원천으로 세웠고 십자가의 비극을 생명의 원천이자 온 인류의 희망으로 변화시켰다.

1. 주님이 주 중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나?

2.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 하시고자 부활하신 그 날에 몇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는가?(막 16:9 ; 눅 24:13-15,34 ; 요 20:19).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목도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였던가?

3. 주님의 무덤 문은 로마제국의 인장으로 인쳐져서 봉해진 것으로 로마 군인들이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가보니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 한다(눅 24:2). 어떻게 그 돌이 옮겨진 것이었나?(마 28:1,2)

4. 몇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는가?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메시지(눅 24:5-7)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으라.

6. 무덤을 보고 돌아간 여인들은 누구에게 본 광경을 증거 하였던가? 또 그 결과는?

7.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무덤이 텅 비고 수의가 정돈된 채 놓여있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20:8 ; 눅 24:12)

8. 성도가 죽으면 장래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 14:19 ; 롬 8:11)

9. 부활하신 후의 주님을 본 것으로 기록된 무리의 수효를 들라(고전 15:60).

10. 이웃이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려는가?

제137공과 자 아

성경본문: 창세기 1:26 ; 로마서 8:9 ; 고린도전서 6:19,20 ; 고린도후서 6:14-18 ; 에베소서 2:19-22

요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고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겔 18:4).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 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1.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라.
2.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이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8,10). 신약성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유명한 죄수를 들라.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이들 몇도 거론하라.
3. 신자가 주님을 섬길 때 당초 설정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도 있다. 베드로는 다 배신하여도 자기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사전에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다. 나중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을 때 주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4. 열두 정탐군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한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라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열 명은 “그 땅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그 성들은 성벽들로 둘러쳐 있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보고했다(민 14:9).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5.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가 가져왔을 때 다윗은 이같이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니이까?”(삼하 7:18). 다윗은 청년기 때나 왕이 된 이후에나 항상 겸손을 유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다른 성경증거를 몇을 들라(삼상 24:14 ; 시 34:6, 40:17).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들라(약 4:6).

6.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극히 장려하게 지어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짓고자” 했다(대상 22:5). 이를 위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물질과 소유를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 전은 모든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처소가 될 것이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전은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또 솔로몬 성전과 오늘날의 하나님의 전과의 유사성을 설명하라.

7.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대하 7:16). 신약시대의 성전인 신자의 심령도 역시 그러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의 심령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제138공과 교리들과 영적 지침들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0:23,24, 31-33 ; 디모데전서 4:13-16 ; 디모데후서 3:16,17 ; 디모데후서 4:1-5 ; 요한일서 2:15-17

요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15)

성경은 성경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진리(교)들을 제공한다. 또한 성경은 신자가 개인과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친다. 교회의 제자훈련의 기초로서, 그리고 교회의 제반 지침들을 세우는 데 근본이 되는 진리인 교리들을 신자들에게 가르칠 권위와 책임을 진 자가 바로 목회자이다. 신자와 교회가 이러한 교리들을 굳게 붙잡을 때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신자끼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

1. “교리”의 한 가지 정의는 “가르쳐지거나 옹호되는 특별한 원리”이다. 성경의 교리들과 관련된 우리의 책임을 말하라(요 7:17).

2. 성경은 신자 개인과 교회에 목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리를 가르치도록 강조한다(딤후 4:1,2). 이 성구들의 뜻과 중요성을 설명하라.

3. 히브리서 13:17절에서는 신자가 목회자에게 취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를 말하라.

4. 흔히 교리는 복음의 뼈대라고 한다. 왜냐하면 교리가 신앙의 골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음 성구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말하라.

마가복음 1:15절과 사도행전 20:21

요한복음 1:12,12절과 로마서 5:1

요한복음 17:15-17절과 히브리서 12:14절
누가복음 24:29절과 사도행전 2:4절
야고보서 5:14-16절
요한복음 14: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16-18절

5. 만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 있다. 하나님은 말씀에 영감을 부어 넣으셨고 이 말씀에서 교리가 생겨난다. 이 교리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6. 요한일서 2:15-17절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

7. 오늘의 주 요절 중 “굳게 서서 ... 유전을 지키라”의 뜻을 설명하라.

제139공과 주의 날

성경본문: 마태복음 12:1-13, 이사야 58:13,14

요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사도행전 20:7)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 주간 중 하루를 쉬는 기본원리는 창조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아주 오래 된 것이다. 그것은 모세율법보다도 앞섰다. 하나님은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날과 관련하여서 따라야 할 특별한 규칙들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가적으로 그들의 안식일(토요일)을 안식하는 날로서 지킬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하나로서 기억한다(출 31:16). 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신약시대의 “주의 날”과 혼동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첫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때에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안식일인 주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이 우리 주님께 존귀를 돌리고자 안식하는 날로서 구별해서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세상 염려들을 버리고 주의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거둔다.

1. 하나님은 이레째 날에 그의 모든 창조의 일들을 쉬셨다. “안식하다”란 말은 “일손을 놓고 쉬다”란 뜻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라(창 2:2,3).

2.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 무엇을 하도록 하라 하셨는가?(출 20:8-11) 또 율법시대에 이 날에 일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출 35:2)

3.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고 불평하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고 응수하셨다. 이 구절의 뜻을 말하라.

4. 율법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열매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것도 안식 후 이튿날에 드려야 했다(레 23:9-12).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 후 이튿날” 곧 한 주의 첫날에 일어났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한다(고전 15:20). 신약시대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라.

5. 다음 성구들은 일요일에 일어난 중요 사건들을 묘사한다. 그것들을 찾아 적으라.

마가복음 16:9
누가복음 24:13
누가복음 24:36
요한복음 20:26
사도행전 2:1
사도행전 20:7
요한계시록 1:10

6. 주의 날은 모세율법 아래서의 유대인의 안식일과는 구별된다. 엄연히 다른 날일뿐더러 구약성경시대의 규례들 중 어느 것도 주의 날로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첫 번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의 신자들을 위한 규례를 정하여 주고자 모였을 때(행 15:1,2, 19-29),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롬 14:1-6 ; 갈 4:9-11 ; 골 2:16,17).

7. “주의 날”은 소유형태로 “주께 속해있음”이란 뜻이다. 옛 언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관계가 있었듯이 새 언약아래에서의 주의 날은 우리 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구원)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요일은 한 주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며 헌금하고자 이 날을 헌신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한다(고전 16:1,2 ; 행 20:7). 오늘날의 신자들이 주의 날을 존경하는 표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들어보라.

8. 하나님은 안식일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사 58:13,14).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또한 주의 날을 존중할 때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9.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적인 짐을 제거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인 주의 날을 지킴으로 오는 축복을 제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날인지도 모른 채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 날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기뻐하고 동료 신자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과연 한 주간 중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고 있는가? 각자 묵상하여 보기 바란다.

제140공과 헌 신

성경본문: 사무엘하 24:17-25, 로마서 12:1,2

요절: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사무엘하 24:24)

거룩하고 헌신된 삶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의 영적 성장에 본질이 되며, 삶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오는 것은 세상에 없다. 헌신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신령한 복들, 곧 구원과 성결과 성령의 침례와 신유와 기타 복들로 이르는 첩경이다. 지나간 과거의 여러 해 동안의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시켜 드려야 한다.

1. 구약시대에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종종 사용된 것들을 들라(출 29:21,22).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런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를 들라.

2. 다윗이 타작마당과 황소들의 값을 치르려고 한 이유를 들라. 그가 아라우나의 제의대로 대가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는가?

3. 그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결과를 적으라.

4. 욥이 그의 삶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욥 1:1,2)

5.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깊은 헌신 가운데로 부르셨을 적에 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창 22:2,3,9-13)

6. 오늘날 신자가 헌신한다면 어떤 유형의 헌신을 하게 되는가?

7.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을 적으라 (행 9:6). 사울이 그때 보인 반응과 그가 후에 성공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의 관계를 말하라.

8. 청년 사울은 주님께 오기 전에 큰 야망과 소망을 품었었다. 당대 최고 지성이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모세율법을 배웠기에 장래 유대 관원이 되거나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안 후 사울은 이 모든 세상 야망들을 다 버렸다. 이후 사도로서 “바울”로 개명한 그는 하나님께 깊은 헌신을 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빌 3:7,8)

9.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부께 취하신 시종여일 하셨던 태도를 들라(마 26:39 ; 요 4:34).

제141공과 가정제단

성경본문: 신명기 6:1-15 ; 디모데후서 1:5,3:15

요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어릴 적부터 종교적으로 체계 있게 교훈하며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자녀 교육상 꼭 필요하다. 부모는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함께 읽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모본을 보임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1. 구약성경에는 가정제단들의 몇 실례가 있다. 아래 성구들을 참조하여 빈 칸을 적고 또 누구에 대한 언급인지를 말하라.

창세기 18:19 -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수아 24:15 - “오직 나와 내 집은.....”

2. 가정제단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일을 읊은 얼마나 자주 했던가? 또 왜 그렇게 했던가?(욥 1:5)

3.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유월절을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쳐서 불사르지 않도록 하라” 하셨다. 육상 경주의 릴레이 경주와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는 것의 유사성을 설명하라.

4.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을 때의 상급은 무엇인가?(잠 22:6) 또 어떤 이는 어릴 적에 바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장성해서 그 교훈을 떠나는 이유를 들라.

5. 가정 제단은 단지 몇 분간의 묵상이 아니다. 부모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말씀대로 열매 맺는 가정예배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가정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6. 자녀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사 28:9) 어린아이의 가장 이른 생애 초기에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몇을 들라.

7.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교회의 목회자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만 있는가?

8. 가정예배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기도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의견들을 토론하라.

9. 미국의 경우, 어린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TV 앞에서만 18,000시간을 보낸다. 매일 2시간 45분간을 TV 앞에서 보내는 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얼마의 시간을 드리며 사는가?

제142공과 하나님의 능력

성경본문: 시편 139:1-13 ; 시편 135:5,6 ; 마가복음 4:35-41 ; 히브리서 4:13 ; 요한일서 3:20

요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역대상 29:11)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은 그의 지으신 피조물들에 나타난다. 우주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도 보시며 아신다.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늘에 거하시나 또한 그의 영으로 신자들 각 심령 속에 거하신다.

1. 복음서에 나오는 밤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입증되고 있는가?(막 4:35-41).

2. 예수님은 바다의 폭풍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물리적인 폭풍과 영적인 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비교하여 보라.

3.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제자들의 울부짖음 속에는 신앙의 요소가 보인다. 이 외의 다른 요소도 있는데 써보라(참조:마 8:26, 눅 8:25)

4.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활용해야 한다(마 21:22).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고 강화시킬 수가 있는가?

5.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필연적으로 끼치게 되는 몇 가지 특별한 면들을 열거하여 보라.

6. 시편 139:7절은 “내가 주 앞에서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이까?”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려고 하겠는가?

7.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히 1:2,3).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통제하시는가?

8.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는 길을 적으라.

제143공과 하나님의 일

성경본문: 마태복음 25:14-30 ; 베드로전서 4:10,11

요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브리서 12:28)

금번 공과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이문을 남기라고 명령했다. “달란트를 선용하다”라는 표현은 이 “달란트”라는 말의 비유적인 용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비유 중에 나오는 금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재능)와의 사이의 유사점을 금번 공과에서 살펴보겠다. 자기네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쓴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으나 신실치 못하게 부주의하게 쓴 자들은 그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잃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손실도 당한 것을 살펴보겠다.

1. 본 비유 가운데는 많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각 종들은 몇 달란트 씩 받았는가?

그들이 그같이 차이 나게 받은 이유는?

그들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그 달란트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은 각자 얼마의 이문을 남겼던가?

2. 비록 이 비유가 돈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여도 그것이 우리 신자의 영적 체험과 관련해 볼 때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3.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당신의 달란트(재능)를 적으라.

4. 비유의 종들은 환전상들을 상대로 돈놀이나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늘리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달란트(돈)를 늘렸던가?

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더 개선시킬 수가 있는가? 그 실례를 들라.

6. 당신이 사무실 지배인의 위치에 있어서 지금 일군 하나를 채용하려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겠는가? 이 기준을 영적 달란트에도 어떤 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

7.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상급을 받는가? 우리 달란트를 사용치 않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8. 하나님의 일에 자기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9. 신자는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가 “헌신하며 성실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할 때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일이 이롭게 되는가?